

“기술독립 이끈다”... 반도체 8개사 등 20개사 추가 지정

중기부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

‘소부장 강소기업 100+’로 전환 기준 100곳서 120곳으로 늘려 총 237곳 선정... 경쟁률 12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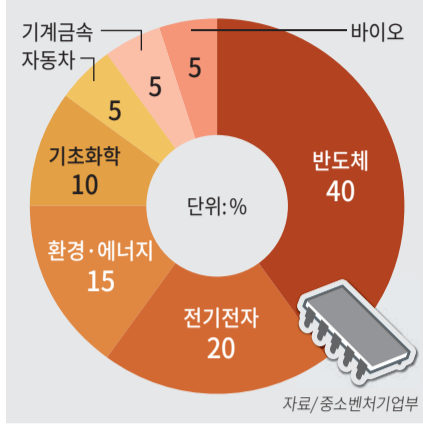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대한민국 ‘기술 독립’을 이끌 강소기업 20곳이 추가로 뽑혔다.

이에 따라 ‘소부장 강소기업’은 총 120개까지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세계 가치사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명을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서 ‘소부장 강소기업 100플러스(+)’로 변경하고 20개사를 더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월에 모집 공고를 실시한 결과 총 237개 중소기업이 신청해 약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소부장강소기업분야별 선정결과



서면·심층·최종평가의 3단계로 구성된 선정 과정에선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타당성 및 효과성과 함께 기술력, 미래 성장성 등 전반적인 기업역량을 평가했다.

최종평가는 지난 17일 대국민 공개로 진행했으며 산학연 기술전문가뿐만 아니라 소부장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평

가단으로 함께 구성된 32명의 평가위원들은 예비 강소기업의 기술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균형있게 평가했다.

분야별로 반도체(8개)는레이크머티리얼즈, 벨류엔지니어링, 아이윈, 엠티아이, 자람테크놀로지, 저스텍, 티엠씨, 피에스케이홀딩스, 전기·전자(4개)는 셀코스, 씨엔티솔루션, 엘디스, 지아이텍, 환경·에너지(3개)는 범한퓨얼셀, 케이피텍, 코렌스알티엑스, 기초화학(2개)은 세일하이텍, 이피켄텍, 기계금속(1개)은 진영비티엑스, 자동차(1개)는 태림산업, 바이오(1개)는 마크로케어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중기부는 관련 프로젝트를 이번엔 ‘소부장 강소기업 +’로 개편하면서 선정분야도 기존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금속 ▲기초화학에 더해 ▲바이오 ▲그린 에너지 ▲비대면 디지털까지 3개 분야를 추가해 총 9개 분야로 늘렸다.

최종 선정 결과 소·부·장 강소기업 출범 배경과 반도체 특별법 등의 정책 지원 기조에 따라 반도체 분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최근 화두가 되는 차세대 전지산업(이차전지·연료전지) 기업이 환경·에너지 분야로 신청해 세 번째로 많았다.

아울러 지역소재 강소기업 비율이 1차 선정 때보다 크게 늘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율이 60%로 역대 최고 비율을 보였으며 전년도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 결과에 비해 충남, 충북지역의 선정 비율이 17.4%에서 35%로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매출액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와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가 각각 6개(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기업이 2개(10%)로 집계됐다. 평균 매출액은 247억원이었다.

중기부는 이번엔 뽑은 20개사를 비롯해 강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소부장 분야에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확대한다.

소부장 강소기업들이 신속하게 기술 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기술혁신 단계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강소기업 100개사에는 그동안 용자·보증, 연구개발(R&D), 투자 등 총 6024억원을 지원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내년에도 강소기업 전용 R&D를 통해 기업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하고 출연연·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소부장 전략협력 R&D를 통해 기업당 최대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투자형 R&D도 최대 2배수, 30억원 한도로 확대하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강소기업을 적극 추천하는 등 명실상부한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진공, 지역사회 공헌기관으로 인정 받아

3년 연속 지정... 지역인재 등 양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3년 연속으로 지정됐다.

28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역특화 인재양성을 위한 ‘중진공감(感) 장학생’ 확대 지원, 시민참여형 지역현안 해결 프로그램인 디지털 리빙랩 프론티어 추진 등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공로를 3년간 인정받았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 기관을 발굴해 지역사회가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 환경경영,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7개 분야를 심사한다. 중진공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중진공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설 개방 및 안전용품 기부, 전통시장 활성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이 지난 5월 13일 ‘중진공감 장학금’ 수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진공

화 캠페인, 지역아동 책드림 캠페인, 지역 복지 개선을 위한 그린사회공헌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참여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연수비와 연수원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제공, 전국 현장 조직을 활용한 맞춤 연계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가치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은 중진공이 탄소중립 전담반 구축 등 ESG경영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상생 경영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ESG전략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기보, 뮤지컬제작사협회와 파트너십 체결

뮤지컬 산업 성장·위기 극복 ‘맞손’ 보증료 감면, 콘텐츠IP 보호 등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뮤지컬산업 지원에 나섰다. 기보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 예술의전당에서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출범식과 ‘뮤지컬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 파트너십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뮤지컬 제작기업의 위기극복과 뮤지컬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협업 모델을 구축했다.

협약에 따라 협회는 뮤지컬 제작능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뮤지컬 제작기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협회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 문화산업완성보증 지원을 통한 보증료 감면(0.2%포인트), 직접투자, 콘텐츠 지식재산권(IP) 보호 및 기술신탁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뮤지컬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기술보증기금 김영춘 이사(오른쪽)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신춘수 회장과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계획이다. 한편, 기보는 2009년 9월 무형의 기술과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콘텐츠 제작 보증을 지원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창의성과 기술력 중심의 기술평가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기보는 서울, 경기, 부산, 대전에 문화산업 전담 영업점인 문화콘텐츠금융센터를 설치해 올해 10월까지 1661건의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해 총 8670억원을 지원했다. /김승호 기자

하반기 中企 생산직 평균 임금 9만8336원

상반기보다 1.1% 늘어

하반기 중소기업 생산직 평균임금이 9만8336원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보다 1.1% 늘어난 액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정부·공공기관 등과 계약 시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1400개

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8월 임금 기준으로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직 조사직종(129개)의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평균 조사노임은 9만8336원으로, 올해 상반기(3월 기준)의 9만7221원 보다 1.1%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의 9만6716원보다는 1.7% 올랐다.

주요 직종별로 조사노임은 단순노무종사원이 8만2001원, 작업반장은 11만9878원, 부품조립원은 8만5726원이었다.

일당을 가장 많은 직종은 13만9921원을 받는 ‘CAD설계사(회로)’, 가장 낮은 임금 직종은 7만2442원인 ‘목재건조 기계조작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조사노임이 상승한 직종의 경우 내년부터 해당 직종 임금의 상승률만큼 입찰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메인비즈협회 스마트서비스 솔루션社 투자유치 행사 성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i-COIN) 일환으로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기업 대상의 투자유치 IR 행사를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스마트서비스 i-COIN IR은 ICT분야 혁신 기술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기업을 발굴해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행사다. /김승호 기자

행사에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브로넥스, 큐버더모먼트 등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관련 개발 기업 6개사가 행사에 참가해 IR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기업별 IR피칭 이후 현장에서 하나벤처스, 어니스트벤처스,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등 벤처캐피탈(VC)들이 투자유치를 위한 심층 멘토링을 진행했다. /김승호 기자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오미كرون 유입 막아라’ 정부 “입국 제한 국가 확대 검토” /사진 뉴스스
▲ ‘50억 클럽’ 등장인물 줄줄이 조사... 사법처리 대상 누가 될까

▲ ‘윤창호법 위반’ 장제원 아들 수혜... 가중처벌 피한다
▲ “저항할 의지조차 없었다”... 직장 괴롭힘에 올해 18명 극단 선택



▲ ‘겨울 길목’ 강원... 개장 첫 주말 맞은 스키장 북적 /사진 뉴스스
▲ 수능정답 오늘 공개... ‘의의신청 1014건’ 오류 인정될까